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과서에 포함된 글은 기능에 따라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로 나뉜다. 메타 텍스트는 교과서 전체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라서 학습 내용 자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서술 텍스트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글이다. 가령 요약하며 읽기 단원이라면 요약하기의 전략과 유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료 텍스트는 제재(題材)라고도 하며,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학습을 위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글이다. 이러한 제재는 독자의 학년을 고려하여 선정이 된다.

제재를 학년에 맞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읽기 쉬운 정도, 즉 수준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 방법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양적 평가에서는 글의 표면적 특성인 문장의 길이, 쉬운 단어의 비율만을 특정한 공식에 대입하여 나온 점수로 수준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글의 수준을 완벽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질적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하여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관습적인 글의 구조가 사용되었는지, 문장의 의미는 명료한지, 독자가 글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며,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문가마다 측정한 결과의 편차가 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어 교과서의 제재를 선정할 때는 수준뿐만 아니라 ‘대자성’, ‘균형성’, ‘계열성’도 함께 고려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은 대자성이 있다고 하며, 조립 설명서는 의미가 고정된 글이어서 대자성이 없다. 대자성이 있는 글은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일정 비율 수록된다. 균형성이란 다양한 유형의 재재가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수록되어야 한다. 계열성이란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배우는 내용이 심화되거나 현재 배우는 것과 과거에 배운 것이 서로 관련되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은 메타 텍스트에 해당한다.
- ② 교과서에서 제재란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글이다.
- ③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 ④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질적 평가라 한다.
- ⑤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판단할 때 독자의 배경지식에 대한 고려는 질적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2. ‘양적 평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글의 표면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② 쉬운 단어의 비율이 높아도 쉬운 단어의 조합에 의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글이 생성될 수 있다.
- ③ 동일한 글에 대해 어떤 평가자는 저학년 수준으로, 다른 평가자는 고학년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독서의 목적과 관습적인 글의 구조의 사용 중 어느 것이 글의 수준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 ⑤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쉬운 단어의 비율 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배부받았다. 차례를 보니 이 교과서에는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제재로 수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저자의 약력도 소개되어 있었다. 시 「진달래꽃」은 ㉡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오늘 받은 교과서에도 있었다. 그때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교과서 글을 읽은 후 「진달래꽃」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해 보고, 중의적인 마지막 구절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났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사 「속미인곡」을 읽은 후 정서와 태도가 「진달래꽃」과 비교해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계승되는 양상을 배우는 것 같다.

- ① ㉠에서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수록된 순서가 달라지면 균형성이 사라진다.
- ② ㉡에 포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글은 자료 텍스트에 해당한다.
- ③ ㉠에 실린 가사 「속미인곡」은 메타 텍스트이고, ㉡에 실린 시 「진달래꽃」은 서술 텍스트이다.
- ④ ㉡에 실린 시 「진달래꽃」의 경우, ㉠의 마지막 장에 소개된 ‘저자의 약력’과는 달리 대자성이 없는 글이다.
- ⑤ ㉠은 시 「진달래꽃」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있고 ㉡에서 배운 것보다도 연관되므로 계열성을 갖추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에서 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결합된 음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화음은 음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두 음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인 ‘도-도’는 1도, 한 간격 차이가 나는 ‘도-레’는 2도라고 음정을 표현한다. 3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 올린 세 개의 음으로 만드는데, 각 음의 명칭은 밑에서부터 근음, 3음, 5음이라 일컫는다. 가령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화음인 ‘도-미-솔’의 경우, 근음에서 3도의 음정을 쌓은 ‘미’를 3음이라고 부르고,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은 ‘솔’은 5음이라고 부른다.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화음, ‘파’를 근음으로 삼는 ‘파-라-도’의 버금딸림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화음과 함께 주요 3화음이라 한다.

주요 3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주요 3화음 만으로도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으뜸화음은 안정감을 주므로 곡의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딸림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이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버금딸림화음은 안정에서 긴장 상태로의 변화나 들뜬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 이때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3화음의 근음을 바꾸기도 한다. 원래의 근음 대신 3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을 차례로 쌓는 것을 ‘첫째 자리바꿈’이라 하는데, 그 결과 으뜸화음의 경우 ‘미-솔-도’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5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쌓는 것을 ‘둘째 자리바꿈’이라 하며 으뜸화음의 경우에는 ‘솔-도-미’가 된다.

음을 가지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보라 하며,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 높은음자리 보표와 낮은음자리 보표를 묶은 ‘큰보표’를 사용한다. 큰보표의 기준 음은 ‘가운데 도’이므로 두 줄 위는 ‘솔’, 두 줄 아래는 ‘파’가 된다. 성부란 합창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이다. 높은음에서 낮은음을 담당하는 순서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어 이들을 4성부라 한다. 즉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을,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낸다. 4성부를 표현할 때는 높은음자리 보표에 소프라노의 음과 알토의 음을, 낮은음자리 보표에 테너의 음과 베이스의 음을 기보한다.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 알토와 테너를 ‘내성’,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상 3성’, 맨 위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하 3성’이라 한다.



주요 3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4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하여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5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령 근음이 ‘솔’이면 한 옥타브 위의 ‘솔’을 중복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 3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건반 악기로 연주하기가 쉽지만, 한 옥타브를 넘으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화성이라 한다. 화성의 진행에는 한 성부의 진행과 두 성부의 진행이 있다. 한 성부의 진행에서 음이 올라가면 상행, 내려가면 하행이라 한다. 또한 음정이 2도로 움직이는 것을 순차 진행이라 하고, 3도 이상 움직일 때는 도약 진행이라 한다. 가령 ‘도’를 낸 후 위의 음인 ‘미’를 내면 상행이면서 도약 진행이다. 한편 두 성부의 진행은 네 가지로 나뉜다. 반진행은 한 성부가 상행이고 다른 성부는 하행인 진행이며, 경사 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다른 성부는 상행 혹은 하행하는 진행이다.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진행이며, 유사 진행은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달라지는 진행이다.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라, 라, 시, 도’를 낼 때 알토는 ‘도, 도, 레, 파’를 낸다고 하자. 이 경우 세 번째 음까지는 음정이 6도를 유지하므로 병진행을 하고, 네 번째 음에서는 5도로 달라지며 두 성부 모두 상행이므로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둘째 자리바꿈을 한 으뜸화음의 근음은 ‘솔’이다.
- ② 4성부 중에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다.
- ③ 화성은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것이다.
- ④ 높은음자리 보표와 낮은음자리 보표를 묶은 것을 큰보표라 한다.
- ⑤ 도약 진행과 병진행은 모두 한 성부의 화성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

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부는 모두 상 3성에 포함된다.
- ② <그림>에 기보된 ‘파와 도’, ‘도와 솔’은 모두 음정이 5도이다.
- ③ 4성부로 ‘도’가 근음인 으뜸화음을 내려 할 때 ‘미’를 중복할 수 있다.
- ④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일 때 알토가 상행이면 반드시 테너도 상행이다.
- ⑤ 큰보표에서 기보되는 하 3성 중에는 높은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성부가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대한 적절한 반응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1>—

주요 3화음을 한 번 이상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네 마디의 곡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마디 1]에서 [마디 4] 순으로 연주가 진행된다.

[마디 1]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 있다.
 [마디 2] 봄기운에 흥분되어 집을 나와 타지를 떠돈다.
 [마디 3]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마디 4]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는다.

이때 [마디 1]과 [마디 4]에는 자리바꿈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화음을 사용하고, [마디 2]에는 ‘첫째 자리바꿈’을 [마디 3]에는 ‘둘째 자리바꿈’을 한 화음을 사용하기로 한다.

<보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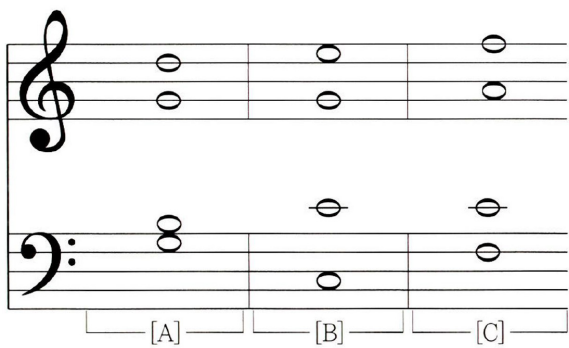
- ㄱ. [마디 1]은 연주 순서가 첫 번째이고 ‘평온’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마디 4]는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두 마디는 모두 으뜸화음을 사용해야겠군.
- ㄴ. [마디 2]에는 ‘봄기운’에 의한 감정이나 ‘집’을 떠난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딸림화음을, [마디 3]에는 해당 마디 내용과 뒤따르는 마디의 화음을 고려했을 때 버금딸림화음을 사용해야겠군.
- ㄷ. [마디 2]의 근음과 [마디 3]의 근음은 모두 으뜸화음에 없는 음이겠군.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음 큰보표는 마디 [A], [B], [C] 순으로 연주가 진행된다.



- ①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소프라노는 도약 진행을 한다.
 ② [A]에서 성부 간 중복된 음과 [C]에서 중복된 음은 서로 같다.
 ③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음자리 보표에서는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④ 테너와 베이스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반진행음,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경사 진행을 한다.
 ⑤ 상 3성의 음역에 따른 연주 악기를 고려할 때 [C]는 현악기 보다 건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무임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학자인 퍼트남은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삼자의 개입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 되는 장비인 물질 자본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 둘은 물질 자본에 해당한다.

㉠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다.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호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 퍼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이 ㉡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얇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퍼트남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얇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퍼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얇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 즉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 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문화 단체, 동호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 왔다.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 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겼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남부에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

물질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자본은 시용할수록 그 집단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혜성과 신뢰도 증진되어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수평적 네트워크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 추구할 경우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호혜성의 결여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사례이다.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형하다고 여긴다면,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퍼트남은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 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㉞ 비약일 수 있는데, 12세기 당시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워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세 이탈리아 시기의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 정치 문화와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㉟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그 사회 도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8.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학생 ‘을’의 평가이다. 평가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	‘갑’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	‘을’의 평가
공통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고 있음.	적절 A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부적절 B
	(나)는 (가)와 달리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학자의 견해를 언급함.	부적절 C

-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9. (가), (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퍼트넘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③ 퍼트넘은 20세기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수직적 네트워크가 더 강한 지역은 어디라고 하였는가?
 ④ 물질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사용 빈도에 따른 가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⑤ 이탈리아에 잔재했던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퍼트넘은 어떤 견해를 밝혔는가?

10. ㉟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혜성은 이익을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해 나가는 경향성이다.
 ②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미래에 대한 상호 기대에 토대를 둔다.
 ③ 균형적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④ 균형적 호혜성은 쌍방 간에 특정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상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
 ⑤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은 모두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즉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11.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㉟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생 국가의 독립은 자국이 물질 자본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국가 주도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도 비도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신생 국가의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에 협력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④ 신생 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최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⑤ 구성원을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한 공동체가 신생 국가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왔다면 공적인 일을 협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2. 다음의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넘’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황 1] 모두가 해야 하는 교실 청소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청소를 하니 자신은 깨끗한 교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교실 청소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

[상황 2] 오래전부터 K 마을 사람들은 김치 담그는 일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 작업으로 해결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다.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집이든 일이 끝나면 집주인은 김치를 두 포기씩 나누어 준다.

[상황 3] 한 달 전 OO 마을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자, 그 마을의 P씨는 이를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회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의 입장과는 다른 게시물은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인근의 ◇◇ 지역이 수해를 입자 내일 수해 복구에 참여하자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음 날 P씨 및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 지역민들은 모두 처음 만나 힘을 합하여 수해 복구를 하며 땀을 흘렸다.

- ① A: [상황 1]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한 것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A: [상황 2]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 가정이 협동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A: [상황 3]에서 ‘수해 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나 힘을 합하는 모습에서 강한 결속이 드러나므로 두터운 신뢰는 사회의 통합에 유용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B: [상황2]에서 '나누어' 받은 양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⑤ B: [상황3]에서 '반응'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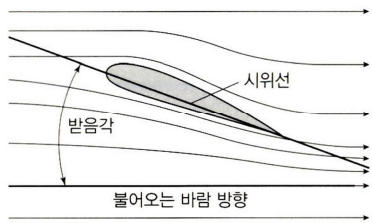
- ① ㉠: 광고는 가장 대표적인 판매 촉진의 수단이다.
- ② ㉡: 이 돈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이다.
- ③ ㉢: 그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④ ㉣: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⑤ ㉤: 결론을 내릴 때에는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풍력 발전기는 바람 에너지를 날개에 부딪히게 하여 날개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풍력 발전기는 날개의 회전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것은 수평축형, 수직인 것은 수직축형으로 구분한다. 수평축형에서 바람은 날개와 나셀, 그리고 타워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나셀은 회전 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모아 둔 상자이고, 타워는 날개와 나셀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 주는 구조물이다.

<그림>은 수평축형의 날개 중 한 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선형의 날개에 부딪힌 바람은 날개의 곡면과 평탄한 면으로 나뉘어 흐른다.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그 결과 곡면 주변은 평탄한 면의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어 날개는 양력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풍속이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한다. 한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받음각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다. 수평축형의 날개는 10도 정도의 받음각을 이루고 있어서, 풍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에 받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을 합한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때 날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풍속은 3m/s 이상이어야 한다.

나셀 내부에는 증속기, 제너레이터, 제어기가 들어 있다. 날개의 회전축은 증속기를 거쳐 제너레이터 축과 연결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을 전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때 증속기는 날개의 회전축의 회전 속력보다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더 증가시켜 준다. 제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전기의 양을 전기의 출력량이라 하며, 과도한 고속 회전은 제너레이터를 손상시키므로 제너레이터의 내구성을 고려해 정해 둔 전기의 출력량의 최댓값을 정격 출력이라 한다. 정격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속이 15m/s에 도달해야 한다.



<그림>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의 효율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제어기에는 요잉 장치와 피치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날개에 고르게 닿아야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잉 장치는 바람의 방향에 대응해 나셀을 움직여서, 회전축을 바람의 방향에 평행하도록 이동시킨다. 피치 장치는 고속 회전에 의한 부품들의 손상을 막기 위해 날개를 움직여 받음각을 조절한다. 그래서 풍속 15m/s부터 25m/s까지는 정격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하나 정격 출력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피치 장치는 풍속에 의해 양력이 증가하는 만큼 받음각을 조절하여 날개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만든다. 풍속이 25m/s를 초과하면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받음각을 0도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어 날개 회전을 중단한다. 이후 풍속이 줄어들면 브레이크 장치의 작동은 해제되고 피치 장치는 받음각을 복원한다.

발전 효율이란 투입한 바람 에너지에 대한 출력되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이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베츠에 의해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59.4%를 넘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상용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이 값보다 더 낮다. 수평축형의 발전 효율이 수직축형보다 더 높은데, 수직축형은 한쪽 날개에 바람이 닿는 동안 반대쪽 날개에는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직축형은 여러 방향의 바람에도 날개 회전이 가능해서 요잉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수평축형에 비해 제어기의 구조가 간단하다.

- * 유선형: 물이나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앞부분을 곡선으로 만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한 형태.
- * 시위선: 날개의 앞 꼭짓점과 뒤 꼭짓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상의 선.

14.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나셀 안에 들어 있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타워의 높이는 얼마여야 하는가?
- ③ 물리학자인 베츠가 발전 효율과 관련하여 연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 ④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에서 날개의 단면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 ⑤ 정격 출력의 의미와 풍력 발전기에서 정격 출력을 정해 두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1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셀은 바람을 모아서 이를 날개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양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 ③ 날개의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 ④ 증속기에 의해 날개의 회전축의 회전 속력은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보다 증가한다.
- ⑤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와 달리 수직축형 풍력 발전기에는,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날개의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필요 없다.

16.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준비한 학생의 발표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나]

위 두 그림은 형태가 다른 풍력 발전기로, [가]는 수직축형이고 [나]는 수평축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이 이루는 각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은 바람이 날개에 닿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바람 에너지를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 전기의 출력량은 (㉡) .

- | | |
|-----------|-----------------|
| ㉠ | ㉡ |
| ① 날개의 회전축 | [가]가 [나]보다 많습니다 |
| ② 날개의 회전축 | [가]가 [나]보다 적습니다 |
| ③ 제너레이터 축 | [가]와 [나]가 같습니다 |
| ④ 날개의 시위선 | [가]가 [나]보다 많습니다 |
| ⑤ 날개의 시위선 | [가]가 [나]보다 적습니다 |

17. <보기>는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하루 동안의 시간대별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T1~T5 시간대에 따른 발전기의 작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구분	시간대	풍속
T1	오전 9시~오전 10시	2m/s에서 1m/s로 점차 감소
T2	오전 11시~정오	4m/s에서 7m/s로 점차 증가
T3	오후 1시~오후 2시	8m/s에서 13m/s로 점차 증가
T4	오후 3시~오후 4시	16m/s에서 23m/s로 점차 증가
T5	오후 5시~오후 6시	28m/s에서 26m/s로 점차 감소

- ① T1과 T2는 풍속이 약하여 발전기에서 전기가 출력되지 못했을 것이다.
- ② T3에서는 풍속과 무관하게 전기의 출력량이 일정했을 것이다.
- ③ T4에서는 날개의 받음각을 감소시켜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이다.
- ④ T5에서는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여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의 일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격 출력을 얻었을 것이다.
- ⑤ 풍속이 점차 증가하는 T2, T3, T4 중에서는 풍속이 점차 감소하는 나머지 시간대와 달리 증속기가 멈추는 시간대가 있었을 것이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우가 경사(京師)*에 다다라 먼저 대궐에 가서 천자의 은혜에 정중하게 사례하였다. 상이 크게 반기시어 불러 보시고 공적을 표창하시어 예부상서 영릉후에 임명하셨다. 태우가 천자의 성은에 감사를 드리고 집안에 돌아와 부모를 뵈었다.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근심이 끝이 없더니 온 집안에 반감이 무궁하였다. 승상과 부인이 태우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태우가 사죄하고 설생을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모두들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승상이 모든 자식들과 더불어 서헌에 나와 설생을 보았는데, 맑고 높은 기질이 표연히 선풍도골(仙風道骨)*이었으니, 수려하고 깨끗한 풍채가 눈을 놀라게 하였다. 승상 및 태우의 여러 형제들이 매우 놀라서 심분 공경하고 별채인 송죽헌에 거처하게 하면서 의식을 각별히 하여 후대하였다. 승상은 설생이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움을 괴이하게 여기었고 이부상서 유세기는 한 번 설생을 보자 결단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우들에게 당부하였다.

[A] “설생이 타향 사람으로 우리를 서먹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 들은 번잡하게 가서 보지 말고 설생을 편히 있게 하여라.”

이부상서 형제가 명을 받들어 구태여 설생을 찾지 않으나 유독 영릉후가 된 세창의 자취가 송죽헌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 영릉후가 매화정에 나가 부인인 남 소저를 대하자 소저가 얼굴에 희색을 띠어 맞이하고 서너 명의 자녀가 겹겹이 반겼다. 영릉후가 다시금 애정이 새롭게 솟아오르면서 이별의 회포를 이르며 반가워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러나 영릉후의 한 조각 마음에는 설생이 객수(客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미심쩍어 마음이 갈리니 이 밤을 겨우 새워 아침 문안 인사를 끝낸 후 바로 송죽헌에 가 설생을 보았다. 영릉후가 설생과 종일토록 말하였는데, 말마다 의기투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밥 먹고 잠자기를 다 잊을 정도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설생은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것이 순탄치 않고 마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천자께 세창과 자신의 혼사를 성사시켜 줄 것을 청해 명분을 얻고자 한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문무 장원에 뽑혀 천자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다.

초벽이 머리를 조아리고 ㉠ 죄를 청하였다.

[B] “신이 일월을 숙이고 음양(陰陽)을 바꾼 죄가 있으니 감히 조정에 아뢰지 못하겠으나, 신의 죄를 용서하시면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차설(且說). 천자가 놀라시어 설초벽에게 마음속에 품은 것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 하시자, 초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신(臣)은 본래 설경화의 어린 딸입니다.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혈혈단신의 아녀자가 강포한 자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 남장(男裝)을 하고 무예를 배워 풍양의 진중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은거하면서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세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세창이 비록 제가 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기(知己)로 허락하였으나, 신이 여자의 몸으로

세창과 동행하여 먹고 자기를 한가지로 하였사오니 의리로 다른 사람을 좇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간다면 뽕나무밭과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나는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뜻을 결정하여 인륜을 폐하고 몸을 깨끗하게 마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부모의 혈맥이 다만 신첩(臣妾)의 한 몸에 있기에 차마 사사로운 염치와 의리 때문에 죽어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後嗣)를 끊게 하는 ㉠죄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온갖 계책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나 그욕이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만민의 부모가 되시니 반드시 신첩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윤리를 완전케 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방목(榜目)*에** 이름을 걸어 성충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저의 진정한 회포를 아웁니다.”

상께서 매우 놀라고 기특하게 여기시어 영릉후인 유세창을 돌아보셨다. 영릉후 또한 매우 놀라 안색이 흠뻑이었다. 상이 유 승상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설씨녀의 재주와 용모와 의협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사정이 불쌍하니 짐이 중매가 되어 세창과 혼인시킬 것이다. 경은 육례(六禮)를 갖추어 저 설씨녀를 맞이하고 평범한 며느리로 대접하지 마라. 저 사람이 타향에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 혼사를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계기로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묘책이다. 충성심이 세상을 덮을 만 하고 문무 장원을 하였으니 삼백 칸 집과 가동(家僮)과 노비를 전례대로 사급하며 특별히 여학사(女學士) 여장군에 임명하여 영릉후 세창의 둘째 부인으로 정하니니 선생은 명심하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 * 경사: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 * 선풍도골: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라는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고아한 풍채를 이르는 말.
- * 객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 * 방목: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적은 책.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우는 천자의 도움으로 승상과 약속한 기한 내에 돌아올 수 있었다.
- ② 승상과 그의 모든 자식들은 설생이 태우와 함께 올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이부상서는 설생의 정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태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 ④ 태우는 설생의 정체를 미심쩍어하면서도 그의 처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⑤ 천자는 초벽을 보자마자 그의 재능과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1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여 상대의 관용을 요청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의 실수를 수용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B]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상대와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③ [A]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지적하여 상대의 행위를 다그치고, [B]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상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의 과거 행적을 제시하며 상대가 지켜야 할 일들을 지시하고, [B]는 타인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⑤ [A]는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언급하며 제삼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B]는 자신과 제삼자의 관계를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곤란함을 설명하고 있다.

20. ‘설초벽’을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받게 된 것은 ㉡이 된 것과 달리, 설초벽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세창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에 이르게 된 것은 ㉠을 청한 것과 달리 천자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유세창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을 얻고, ㉡이 되었다.
- ④ 설초벽은 ㉡이 되지 않기 위해 ㉠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 ⑤ ㉠은 유세창을 만난 후 행한 일이며, ㉡은 유세창을 만나기 전에 발생한 상황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대하소설이다. 대하소설은 남녀의 결연과 그 이후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결연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결연담 중 늑혼(勒婚) 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늑혼이란 원래 한쪽의 혼인 주체가 권력이나 재물 등을 활용하여 상대 혼인 주체에게 강요하는 혼사를 말한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자신의 애정을 관찰하기 위해 늑혼을 이용한 여성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다. 당시 가부장제 체제하의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나가기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를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설초벽이 유세창과 허물없는 ‘지기’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남장’을 하는 모습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설초벽이 천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아뢰는 것은 유세창과 혼인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애정을 관찰시키기 위함 이군.

- ③ 천자가 유 승상에게 설초벽과의 혼인을 ‘명령’하는 장면을 통해 권력을 활용하여 유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려는 설초벽의 의도를 보여 주는군.
- ④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에 이름’을 올린 설초벽의 모습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여성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설초벽이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가는 것을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에서 당시의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가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안경을 코에 걸치고
 ㉠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품위 없는 짓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 김광규, 「뺄셈」 -

(나)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 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매, ㉢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석(朝夕)으로 아쉽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흰하면 일어나 뜰을 거닌다.
 진달래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눈에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였다. 눈만 아니라 코에도 아직 꽃향기였다.
 그러던 꽃이 다 졌다. ㉣ 머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었어도 지고 자빠도 졌다. 그중에도 었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찢었다.

가만히 보면 었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적막이요, 슬픔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쯤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다.

낙화(落花)의 적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 이번 처럼 마음을 찢러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뭇가지는 자주 손질을 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피주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볼 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보다 더욱 박명(薄命)은 하리라. 그러나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적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낙화는 한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千古)를 보는 양,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축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그런 낙화를 위해 나무 아래의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럽다.

- 이태준, 「낙화의 적막」 -

*적멸: 세계를 영원히 벗어남. 또는 그런 경지.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상향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 ②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다.
- ③ 타인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사라진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 ④ 세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모순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3.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과 단절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광규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에는 평이한 시어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려 내는 시인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순한 셈법에 삶의 자세를 빗대어,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있다.

- ① ‘덧셈’을 끝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를 통해 시인이 추구한 삶의 모습과 지향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을 통해 화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③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와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덧셈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④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부질없다고 여기는 화자의 모습은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뺄셈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비우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침마다 환하면 일어나 뜰을 거’니는 ‘나’의 모습은 ‘봄’을 간절히 기다렸던 심정을 보여 준다.
- ② ‘밥상을 대하면 눈엔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는 것은 꽃 감상에 푹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강조한다.
- ③ ‘가만히 보면 엮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은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나’의 태도를 나타낸다.
- ④ ‘꽃이 떨어질 자리’의 ‘거칠음’은 그동안 낙화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을 드러낸다.
- 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은 ‘나’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낙화’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③ ㉢에는 기대하던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내포 되어 있다.
- ④ ㉣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고뇌가 담겨 있다.
- ⑤ ㉤에서는 과거의 상황과 대비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야 인마, 너 정말 목수한테 가긴 갔었어?”
 선생님은 저녁 해가 떨어지자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 그럼요. 제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아직 안 와!”
 “글쎄 꼭 오라고 부탁을 했더니깐요.”
 “그런데 아직 안 오지 않아.”
 “헤 참, 선생님도 급하시긴. 전에는 며칠씩도 문밖에 안 나오 시곤 했으면서 뭘 그러셔요.”
 나는 화실 ㉠창문 밖 등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쇠창살 안의 선생님 말동무를 해 주며 그렇게 웃었죠. 그랬더니 창턱에 걸터앉은 선생님은 곰방대를 뽀뽀뽀 뽀뽀 하면서,
 “이 녀석 바라! 그거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구 지금은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 아냐.” 하며 웃더군요.
 “마찬가지죠 뭘. 안 나가나 못 나가나 화실 안에 있는 건 같지 않아요. 뭘 심부름시킬 일 있으면 시키셔요. 제가 다 해 드릴 게요.”
 “일은 무슨 일이 있어, 이 녀석아.”
 “그럼 됐죠 뭐.”
 “허 녀석.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구나, 넌.”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뭘 불편하신 게 있어요, 서울 가실 일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요.”
 “듣기 싫다, 이 녀석아. 너하고 이야길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안의 돼지하고 하겠다.”
 “헤 참, 선생님도. 이제 목수 아저씨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동안 선생님 저녁이나 드셔요. 전 식은 밥이라도 한술 먹어야겠어요.”
 난 일어나 별채로 나왔어요. 선생님은 화실에 전등을 켜 생각도 않고 그대로 창턱에 걸터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기다려도 목수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디다.

(중략)

“야 인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 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쇠창살을 두 손으로 짊 쥐고 마구 흔들며 대며 소리소리 지르지 뭘니까.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난 전엔 그런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창에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 나와서 날 박살을 냈을 겁니다. 정말 겁났어요. 이마엔 핏줄이 서고 입은 딱 다물고. 선생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나 아닌가 했더니깐요.
 “예, 목수 아저씨한테 또 갔다 올게요, 선생님!”
 나는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읍내로 달렸습디다. 그땐 벌써 밤이 꽤 깊었죠. 캄캄한 길을 나는 거의 단숨에 읍내에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뭘니까. 목수 아저씨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자고 있지 뭘니까.
 “아저씨, 빨리 좀 일어나세요. 문을 좀 열어 주어야 해요.”

“음, 문……? 문을 열면 되지 뭐 그래.”
 목수 아저씨는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좀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잔뜩 화났단 말예요!”
 “화가 나……? 왜 화가 나…….”
 목수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취해서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이죠.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단 말예요!”
 “문이…… 고장이 났다!”/“예, 그래요.”
 “인마, 문이 무슨 고장이 나고 말고가 있어…… 열면 되지……
 문이란 인마, 열리게 왜 있는 거지, 인마.”
 목수 아저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쓱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누워 버렸어요.
 “그게 아냐요 아저씨가 달아 준 저의 선생님 화실 문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걸어차라 걸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디 있어, 인마.”
 목수 아저씨 잔뜩 몸을 꼬부리며 줌처럼 깨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총각, 웬만하면 널 아침 일찍 고치지.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되겠어 어디.”
 목수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글쎄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미쳐?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미칠 거야 뭐 있어?”
 “글쎄나 말이지.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런
 걸 어떡해요.”
 “왜, 뒷간에라도 가고 싶은가?”
 “뒷간엔요! 그런 건 다 안에 있죠.”
 “그럼 배가 고프는가?”
 “허 참, 아주머니도. 먹을 건 얼마든지 안에 다 있다가요!”
 “그런데 왜 그래. 먹을 것 있구 뒤불 데 있으면 똥지, 그런데 미치긴
 왜 미쳐? 오, 바람이 안 통해서 숨이 답답한가 보구먼 그래.”
 “허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왜 안 통해요. 스무
 평방의 사방이 창문인데!”
 “그럼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더구나 지금 밤인데, 열어
 놓았던 문도 걸어 잠그고 잘 시간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윈 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 이범선, 「고장 난 문」 -

2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사건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④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을 통해 사회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쇠창살을 잡고 소리 지르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 ② ‘나’는 화실에 갇힌 선생님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여긴다.
- ③ 선생님은 ‘나’와 대화를 하며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답답해하였다.
- ④ 선생님이 역정을 낸 것은 목수가 밤늦게 도착할 것임을 ‘나’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 ⑤ 목수네 아주머니는 목수가 술에 취했음을 근거로 들어 ‘나’가 목수를 데려가는 것을 만류하였다.

29. ㉠의 서술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 ②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곤란함을 막아 준다.
- ③ 외부에 대한 갈망이 표출된 곳으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해 준다.
- ④ 외부의 현실을 투영하여 내부에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욕망을 강화한다.
- ⑤ 외부와 내부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여 현실을 외면하려는 인물의 의식을 보여 준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장 난 문」은 외적 요소에 의해 자유가 억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현실, 권력 등의 외적 요소를 상징하며, 작품 속 화가는 고장 난 문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립된 상황에 놓인 화가는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해결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변 인물들로 인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자유가 억압당하던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 소시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① 문을 열기 위해 목수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선생님의 모습은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저항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②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라고 답하는 목수의 아내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당대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③ 고장 난 문을 고쳐 달라는 ‘나’의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목수의 태도를 통해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보여 주는군.

- ④ 화실 안에 갇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는’ 선생님의 모습은 자유가 억압당하며 점차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군.
- ⑤ 사방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화실 안에 갇혀 답답함을 호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이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지형 시가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소지(所志)’ 형식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고문서의 한 양식인 소지가 국문 시가와 갈래 교섭을 일으키며 문학사에 등장한 형태이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데, 청원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내용의 기술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적 수사 장치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문학 양식과의 접변 및 교섭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열려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소지의 본래 성격은 청원(請願) 및 진정(陳情)에 있다. 따라서 소지를 활용한 소지형 시가의 경우 작가가 지니고 있는 심적 지향을 진술하거나 소망하는 바를 청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적 화자의 소망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말놀음, 극한 과장, 전고(典故) 차용 등 다양한 수사적 장치가 동원된다. 한편 소지형 시가 작품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무절제하게 표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말미에서 청원 및 진정을 처리해 주는 권한자의 처분을 제시하여 화자의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나)

삼가 뜻하는 바를 아뢰오니 상제께서 ㉠ 처분하오소서
 주천(酒泉)*이 주인 없어 오래도록 황폐하였으니 그 이유 살피신 후에 제가 바라는 일을 처결하여 허락함을 공증문서로 발급하옵소서
 상제께서 소장 안에 호소하는 바를 다 살펴보았거니와 유령* 이백*도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세상의 공적 물건이라 제 마음대로 못 할 일이라

- 작자 미상 -

*주천: 중국 감숙성의 지명으로 술맛 나는 물이 샘솟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풍류와 취락의 이상적 공간으로 널리 이름난 곳.
 *유령: 중국 진나라 때의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으로, 술을 몹시 즐기던 시인.
 *이백: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술을 친구로 삼은 시선(詩仙)으로 불림.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 받지 못했거든: 주천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

(다)

순창 서리(胥吏) 최윤재는 사또님께 소지(所志) 올려 원통함을 아뢰오니 올바르게 처결해 주소서
 구월 십사일은 담양 부사 생신이라
 소인의 사또가 사흘 전에 달려갈 때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갔는데
 광주 고을 목사와 화순 창평 남평 원님
 십사일 조식 후에 일제히 모이셨네
 바야흐로 큰상에 성찬을 벌여 놓고
 관악기 현악기는 누각에 늘어놓고
 구름 같은 묘한 곡에 씩씩한 몸 상좌에 앉아 있고
 도내의 제일 명창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무를 대령하여 이날을 보낸 후에
십오야 밝은 달의 후약이 어디인가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화려한 육각 양산 청산에 나부끼고
 오마(五馬) 쌍전은 단풍 숲으로 들어갈 제
 옥패는 쟁그랑쟁그랑 걸음마다 울리고
 낭랑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 제
 동산의 고상한 놀이* 용문의 눈 구경*에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아리따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 지어
 말 타고 군졸들과 수레를 뒤따르니
 창안백발 **화순 원님** 기생에게 다정하사
 굽이진 곳에서 자주 돌아보시기에
소인은 하인이라 말에 앉아 있기 황송하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오르락내리락 몇 번인 줄 모르겠네
 망망히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노라니
 석양에 큰길 아래서 실족하야 넘어지니
 돌들이 흩어진 곳에 콩 태 자로 자빠지니
 팔다리도 부러지고 옆구리도 빼어서
 어혈(瘀血)이 마구 흘러 흉격이 펴지지 않고
 금령이 지엄하와 개똥도 못 먹고
 병세가 기괴하와 날로 위중하니
 푸닥거리 경 읽기는 다 해 봐야 헛되도다
 이제는 하릴없이 죽을 줄로 알았더니
 곰곰 앉아 생각하니 이것이 뉘 탓인고
 강천에서 배행하던 **기생들의** 탓이로다
 네 쇠뿔이 아니런들 내 담이 무너지랴
속담에 이른 말씀 예부터 이러하니
소인의 죽는 목숨 그 아니 불쌍한가
 소인이 죽거든 저년들을 죽이시어
불쌍히 죽는 냇을 위로하여 주옵실까
 실낱같이 남은 목숨 살려 주시길 바라나이다

(중략)

죄범이 중타 하시어 저리 행하옵시니
 수화(水火)에 들라 하신들 감히 거역하리까

죽이지거나 살리시거나 ㉞ 처분대로 하려니와
 의녀 등도 원통하와 소회를 아릴 것이니
 일월같이 밝으신 순찰 사또님께
 한 말씀만 아뢰옵고 매를 맞고 죽겠나이다
 의녀 등은 기생이요 최윤재는 아전이라
 기생이 아전에게 간섭할 일 없사옵고
화순 사또 뒤돌아보시기는 구태여 의녀들을 보시려 하셨던
 건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물을 구경하려다 우연히 보셨던 건지
 아전이 제 인사로 제 말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하여 만일에 죽는다 한들
 어찌 의녀들이 살인이 되리이까

- 이운영, 「순창가」 -

* 동산의 고상한 놀이: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화계 땅 동산에서
 은거하면서 한가로이 노닐 적에 항상 가무에 능한 기녀를 대동
 했다는 고사를 이룸.
 * 용문의 눈 구경: 서도(西都)의 태수 전유연이 송나라 사회심과
 구양수가 눈이 내린 용문의 향산(香山)에 이르자 용문의 눈경치를
 구경할 것을 권유한 고사를 이룸.

31.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통해 대상을 향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화자와 대상 인물 간의 문답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32.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공증문서’의 발급 요청을 통해 부각하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제가 바라는 일’을 청원하며 황폐화된 ‘주천’을 ‘상제’께서 복구시켜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적 지향을 표출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제’가 화자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과도한 욕망에 대한 경계를 전달하고 있군.
- ④ (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소인의 죽는 목숨’의 억울함이 ‘기생들’의 탓임을 강조하고 있군.
- ⑤ (다)는 ‘불쌍히 죽는 닛’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을 권한자에게 진정하며 개인의 소망을 함께 청원하고 있군.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윤재’는 사령의 우두머리로서 순창 사또의 행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 ② ‘십오야 밝은 달의 후약’은 ‘호남 소금강’의 산수를 유람하는 것이었다.
- ③ ‘소인’은 ‘화순 원님’이 보는 앞에서 말에 타고 있기가 민망하여 말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 ④ ‘의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원통한 소회를 아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 ⑤ ‘의녀’들은 ‘화순 사또’가 뒤를 돌아보신 것은 자신들을 보고자한 것인지 경치를 보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34. ㉞와 ㉟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에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이, ㉟에는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㉞에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제안이, ㉟에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명령이 반영되어 있다.
- ③ ㉞에는 권한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㉟에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권한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④ ㉞에는 화자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㉟에는 화자가 수용해야 하는 결과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 ⑤ ㉞는 화자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고, ㉟는 화자가 현재 처한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면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어서 오세요. '○○ 식물원 관찰 과학 캠프'에 지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캠프 참가 신청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선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네. 신청서에 썼듯이 제 희망 진로는 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변 식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 식물원 누리 소통망에 올라오는 내용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관찰 과학 캠프에 대한 공지 글을 보고, 제가 꼭 해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네, 아주 열정이 넘치는군요. 참가 신청서에 캠프 중 꼭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들꽃 관찰'을 써 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 들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며 지나칩니다. 저는 이름이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집 근처 공원과 산을 지나면서 보이는 대로 사진을 찍고 전문 서적에서 들꽃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 들꽃이 생명력이 강하고 예쁘면서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들꽃 전문가인 김□□ 박사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제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 그렇군요. 전문 서적에서 들꽃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책에서 찾은 들꽃 중 주변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들꽃 한 가지만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 네, 식물원으로 오는 길에 있는 공터에 개망초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망초꽃은 국화를 축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개망초꽃」이라는 시에서 흔하게 보이는 꽃이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흔히 보면서도 잘 모르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잎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꽃은 차나 염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쓰임새가 많은데,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면접관: 보통 학생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시까지도 아는 것을 보니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찰 과학 캠프를 위한 기초 소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뭇잎 샘플을 보여 주며) 여기 세 장의 나뭇잎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면접관: (샘플을 건네주며)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찾은 만큼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학생: 세 나뭇잎은 모두 길쭉한 형태로 비슷해 보이지만 두 번째 잎의 무늬가 훨씬 촘촘하고 다른 둘은 간격이 넓습니다. 첫 번째 잎은 나뭇잎 주변이 뽀족한 편이지만 나머지 둘은 매끄럽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잎은 계통적으로 같고, 두 번째 잎은 다른 두 개와 다른 것 같습니다.

면접관: 눈썰미가 좋네요. 첫 번째는 밤나무, 두 번째는 나도밤나무, 세 번째는 너도밤나무 잎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학생: 몰랐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네요.

면접관: 계통을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걸요. 마지막으로 이번 관찰 과학 캠프 참가가 확정된다면 캠프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네. ○○ 식물원은 평소에 외부 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침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실제로 보기 어려운 식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유 탐구 시간을 활용해서 쉽게 볼 수 없는 식물을 많이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 식물원의 귀한 식물들'이라는 안내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면접관: 좋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합격한다면 다음에 만납시다.

학생: 감사합니다.

35. 면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이 한 답변의 내용을 일부 반복하면서 답변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 ③ 면접 상황에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의 관찰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생이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답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학생에게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36. 학생이 세운 답변 계획 중 면접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지원하게 된 계기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나의 희망 진로와 ○○ 식물원에 대한 관심을 엮어서 이야기해야겠어.
- ② 제출한 신청서에 관한 질문에는 신청서 작성 의도를 설명하면서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해야겠어.
- ③ 식물이나 꽃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연관된 인문학적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야겠어.
- ④ 답변이 쉽지 않은 질문에는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겠어.
- ⑤ 캠프에서의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내가 ○○ 식물원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정보를 반영하여 답변해야겠어.

37. 다음은 위 면접의 평가 기준의 일부이다. ㉠, ㉡과 관련하여 보일 수 있는 면접관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지원자는 캠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1. 관찰 및 탐구 역량	㉠
2. 탐구 계획 및 문제 해결 역량	㉡

- ① ㉠: 여러 나뭇잎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을 보니 관찰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해야겠어.

- ② ㉠: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들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관련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해야겠어.
- ③ ㉠: 신청서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들어 보니, 평소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스스로 탐구하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해야겠어.
- ④ ㉠: ○○ 식물원의 방침을 잘 알고 이를 탐구 계획에 반영한 것을 보니 계획을 세우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해야겠어.
- ⑤ ㉠: 함께할 들꽃 전문가에 대해 알고 있고 도움을 받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음을 볼 때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해야겠어.

[38~42] (가)는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듣고 교지에 기고하기 위해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과학 특강 시리즈 두 번째, ‘영화 속의 지구 과학’ 강연을 맡은 천문 연구원 □□□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속의 내용들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죠. (영화 장면을 보여 주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이 데이트 분위기를 위해 달을 당겨 오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달을 당겨 올 수는 없지만 달이 지구 가까이와서 평소보다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슈퍼 문’입니다.

슈퍼 문이 나타나는 이유는 달이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원에 가깝기는 하지만 타원 궤도라서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이렇게 지구와 가까워지는 곳이 있고 멀어지는 곳이 생기는데요, 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을 때의 보름달이니까 당연히 다른 보름달보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올해는 10월 17일에 뜬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슈퍼 문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조석 간만의 차가 다른 때보다 커지고 밀물 때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화에서 보이는 정도로 달이 가까이 오면 달의 인력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지각이 틀어지면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데이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 자전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일출이나 일몰이 없고, 밤 또는 낮이 계속될 겁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영화 장면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영화 장면을 보여 주며) 이 영화에서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서 지구 자기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들은 방향을 잃고,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지요. 지구 자기장은 새가 방향을 잡을 때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지구 자기장이 소멸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가 손상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너무 가까이 오거나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흘러보내는 장면들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오늘 강연한 내용 말고도 흥미로운 지식을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번 학기에 실시된 과학 특강 시리즈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강연은 ‘영화 속의 지구 과학’이다. 강연을 맡은 천문 연구원 □□□ 박사는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영화에서처럼 달이 지구에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이 강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학적 개념을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슈퍼 문과 지구 자기장이다.

슈퍼 문은 달이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름 달이 지구와 가장 근접한 지점인 근지점에 있을 때 나타난다. 보통 슈퍼 문은



(출처: 한국 천문 연구원, 2017)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작게 보이는 달인 미니 문보다 약 14% 더 크다. 그리고 밝기도 약 30% 더 밝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대략 384,000 km이고, 미니 문이 관찰되는 원지점은 대략 400,000 km, 슈퍼 문이 관찰되는 근지점은 대략 357,000 km이다. 이 거리 차이가 슈퍼 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달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지형지물 때문에 달이 크게 보이는 ‘달 착시’ 현상도 있다. 이는 우리가 착각하여 달을 크게 보는 것으로, 슈퍼 문과는 다르다.

달의 인력은 조석(潮汐) 현상의 원인이 되는데 슈퍼 문이 나타날 때는 달의 인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조석 간만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평소보다 19% 정도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달이 지구에 더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지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지구 자기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자전으로 내부의 액체로 이루어진 코어가 회전하면서 생겨난다는 가설이 유력하다. 지구 자기장은 비를 막아 주는 우산처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맞게 되기 때문에 큰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통신 수단이 교란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구 과학 지식은 매우 흥미로운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삶과 관련이 있는 과학 지식을 알아 보면 과학 공부가 더 즐거워질 것이다.

38. (가)에서 강연자의 강연 전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강연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청중과 소통하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서로 다른 형태의 매체 자료를 제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청중에게 과학 지식을 더 찾아볼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강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하며 강연을 이어 가고 있다.

39. (가)의 강연자가 강연을 준비하며 생각한 내용 중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영화의 장면들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②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슈퍼 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낱자를 제시해야겠어.
- ③ 청중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전하는 궤도와 관련된 설명을 준비해야겠어.
- ④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 문과 지구 자기장 현상을 비교하여 이야기해야겠어.
- ⑤ 청중이 가진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자기장 소멸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해야겠어.

40. <보기>는 (가)와 (나)를 모두 접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1: (가)에서는 (나)와 달리 슈퍼 문이 뜨는 날짜를 이야기해 주어서 유익했어. 그런데 몇 년 주기로 슈퍼 문이 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학생 2: 만유인력은 두 물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지구의 인력이 달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봐야겠어.

학생 3: (나)에서는 (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지구 자기장의 생성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지식은 아닌 것 같아.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학회의 연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가)에서만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
- ② '학생 2'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가)와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탐색하려 한다.
- ③ '학생 3'은 (나)에서만 언급된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
- ④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가)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정보를 (나)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1. (가)의 강연 내용을 활용하여 (나)를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상과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상세하게 알려 줘야겠군.
- ②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려하여 슈퍼 문과 비교되는 현상을 추가하여 설명해야겠군.
- ③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슈퍼 문과 미니 문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겠군.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연에서 언급한 영화의 내용을 제시해야겠군.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 자기장의 역할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야겠군.

42. [A]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슈퍼 문과 다른 현상을 비교하여 원리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 슈퍼 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한 후, 슈퍼 문이 아닐 때와 비교하고 있다.
- ㉢ 슈퍼 문 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구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주고 있다.
- ㉣ 슈퍼 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여, 여러 종류의 슈퍼 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43~45] 다음은 작문 과제와 이를 수행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시사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하여 비평하는 글 쓰기

[초고]

전동 키보드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 장치이다. 가까운 거리를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공유 앱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전동 키보드는 빠른 주행 속도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 안전에 더 취약하고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도로 교통법을 잘 모르고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동 키보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키보드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고의 증가 문제 때문에 2021년에 개정된 관련 도로 교통법에서는 전동 키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전동 킷보드는 인도에서 탈 수 없다. 얼마 전 주변에서 두 명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킷보드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법규 위반이면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전동 킷보드 관련 안전 문제는 공유 전동 킷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운행이 끝난 뒤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내버려둔 공유 전동 킷보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미관상의 문제로 전동 킷보드 대여 사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동 킷보드는 우리에게 이중성을 가진 도구이다. 전동 킷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3. <보기>는 초고의 4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고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또 전동 킷보드 관련 안전 문제는 공유 전동 킷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운행이 끝난 뒤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한 공유 전동 킷보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 ① 의미 중복이 나타난 표현을 수정했다.
- ② 앞 문단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정했다.
- ③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삭제했다.
- ④ 지시어를 사용하여 중의적인 의미가 해소되도록 수정했다.
- 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는 부분을 호응이 되도록 수정했다.

44.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바꾸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데, '이중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절한 비유와 함께 제시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하여 제시하면 좋겠다.

- ① 전동 킷보드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전동 킷보드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전동 킷보드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목초지의 풀처럼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공유 전동 킷보드를 대여해서 탈 때는 자신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공유 앱을 이용한 전동 킷보드 사용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두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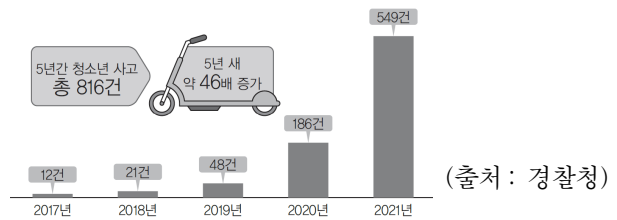
④ 전동 킷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법규를 준수하며, 공유 전동 킷보드를 이용한 후에도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⑤ 전동 킷보드는 친환경적인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동 킷보드를 탈 때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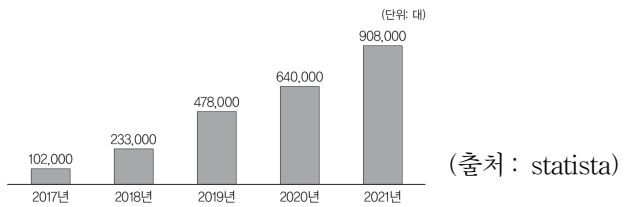
45. <보기>는 윗글을 쓴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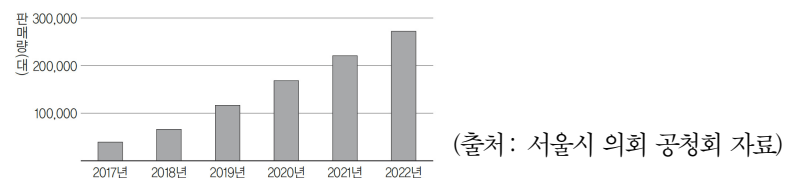
[자료 1] 10대 청소년의 전동 킷보드 사고 현황



[자료 2] 프랑스 전동 킷보드 판매 추이



[자료 3] 개인형 이동 장치 판매 현황



- ① [자료 1]: 10대 청소년의 전동 킷보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 자료로 2문단에 활용한다.
- ② [자료 2]: 다른 나라에서도 전동 킷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 주는 현황 자료로 1문단에 활용한다.
- ③ [자료 3]: 전동 킷보드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1문단에 활용한다.
- ④ [자료 1], [자료 3]: 전동 킷보드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법률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3문단에 활용한다.
- ⑤ [자료 2], [자료 3]: 외국에서도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킷보드가 많다는 것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활용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과서에 포함된 글은 기능에 따라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로 나뉜다. 메타 텍스트는 교과서 전체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라서 학습 내용 자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서술 텍스트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글이다. 가령 요약하며 읽기 단원이라면 요약하기의 전략과 유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료 텍스트는 제재(題材)라고도 하며,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학습을 위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글이다. 이러한 제재는 독자의 학년을 고려하여 선정이 된다.

제재를 학년에 맞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읽기 쉬운 정도, 즉 수준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 방법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양적 평가에서는 글의 표면적 특성인 문장의 길이, 쉬운 단어의 비율만을 특정한 공식에 대입하여 나온 점수로 수준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글의 수준을 완벽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질적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주관에 기초하여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관습적인 글의 구조가 사용되었는지, 문장의 의미는 명료한지, 독자가 글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며,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문가마다 측정한 결과의 편차가 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어 교과서의 제재를 선정할 때는 수준뿐만 아니라 ‘대자성’, ‘균형성’, ‘계열성’도 함께 고려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은 대자성이 있다고 하며, 조립 설명서는 의미가 고정된 글이어서 대자성이 없다. 대자성이 있는 글은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일정 비율 수록된다. 균형성이란 다양한 유형의 재재가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수록되어야 한다. 계열성이란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배우는 내용이 심화되거나 현재 배우는 것과 과거에 배운 것이 서로 관련되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은 메타 텍스트에 해당한다.
- ② 교과서에서 제재란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글이다.
- ③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 ④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질적 평가라 한다.
- ⑤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판단할 때 독자의 배경지식에 대한 고려는 질적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2. ‘양적 평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쉬운 단어의 비율 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② 독서의 목적과 관습적인 글의 구조의 사용 중 어느 것이 글의 수준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 ③ 동일한 글에 대해 어떤 평가자는 저학년 수준으로, 다른 평가자는 고학년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쉬운 단어의 비율이 높아도 쉬운 단어의 조합에 의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글이 생성될 수 있다.
- ⑤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글의 표면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배부받았다. 차례를 보니 이 교과서에는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모두 제재로 수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저자의 약력도 소개되어 있었다. 시 「진달래꽃」은 ㉡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오늘 받은 교과서에도 있었다. 그때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교과서 글을 읽은 후 「진달래꽃」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해 보고, 중의적인 마지막 구절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났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사 「속미인곡」을 읽은 후 정서와 태도가 「진달래꽃」과 비교해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계승되는 양상을 배우는 것 같다.

- ① ㉠에서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수록된 순서가 달라지면 균형성이 사라진다.
- ② ㉡에 포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글은 자료 텍스트에 해당한다.
- ③ ㉠에 실린 가사 「속미인곡」은 메타 텍스트이고, ㉡에 실린 시 「진달래꽃」은 서술 텍스트이다.
- ④ ㉡에 실린 시 「진달래꽃」의 경우, ㉠의 마지막 장에 소개된 ‘저자의 약력’과는 달리 대자성이 없는 글이다.
- ⑤ ㉠은 시 「진달래꽃」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있고 ㉡에서 배운 것보다도 연관되므로 계열성을 갖추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에서 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결합된 음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화음은 음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두 음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인 ‘도-도’는 1도, 한 간격 차이가 나는 ‘도-레’는 2도라고 음정을 표현한다. 3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 올린 세 개의 음으로 만드는데, 각 음의 명칭은 밑에서부터 근음, 3음, 5음이라 일컫는다. 가령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화음인 ‘도-미-솔’의 경우, 근음에서 3도의 음정을 쌓은 ‘미’를 3음이라고 부르고,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은 ‘솔’은 5음이라고 부른다.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화음, ‘파’를 근음으로 삼는 ‘파-라-도’의 버금딸림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화음과 함께 주요 3화음이라 한다.

주요 3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주요 3화음 만으로도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으뜸화음은 안정감을 주므로 곡의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딸림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이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버금딸림화음은 안정에서 긴장 상태로의 변화나 들뜬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 이때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3화음의 근음을 바꾸기도 한다. 원래의 근음 대신 3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을 차례로 쌓는 것을 ‘첫째 자리바꿈’이라 하는데, 그 결과 으뜸화음의 경우 ‘미-솔-도’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5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쌓는 것을 ‘둘째 자리바꿈’이라 하며 으뜸화음의 경우에는 ‘솔-도-미’가 된다.

음을 가지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보라 하며,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 높은음자리 보표와 낮은음자리 보표를 묶은 ‘큰보표’를 사용한다. 큰보표의 기준 음은 ‘가운데 도’이므로 두 줄 위는 ‘솔’, 두 줄 아래는 ‘파’가 된다. 성부란 합창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이다. 높은음에서 낮은음을 담당하는 순서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어 이들을 4성부라 한다. 즉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을,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낸다. 4성부를 표현할 때는 높은음자리 보표에 소프라노의 음과 알토의 음을, 낮은음자리 보표에 테너의 음과 베이스의 음을 기보한다.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 알토와 테너를 ‘내성’,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상 3성’, 맨 위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하 3성’이라 한다.



주요 3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4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하여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5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령 근음이 ‘솔’이면 한 옥타브 위의 ‘솔’을 중복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 3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건반 악기로 연주하기가 쉽지만, 한 옥타브를 넘으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화성이라 한다. 화성의 진행에는 한 성부의 진행과 두 성부의 진행이 있다. 한 성부의 진행에서 음이 올라가면 상행, 내려가면 하행이라 한다. 또한 음정이 2도로 움직이는 것을 순차 진행이라 하고, 3도 이상 움직일 때는 도약 진행이라 한다. 가령 ‘도’를 낸 후 위의 음인 ‘미’를 내면 상행이면서 도약 진행이다. 한편 두 성부의 진행은 네 가지로 나뉜다. 반진행은 한 성부가 상행이고 다른 성부는 하행인 진행이며, 경사 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다른 성부는 상행 혹은 하행하는 진행이다.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진행이며, 유사 진행은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달라지는 진행이다.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라, 라, 시, 도’를 낼 때 알토는 ‘도, 도, 레, 파’를 낸다고 하자. 이 경우 세 번째 음까지는 음정이 6도를 유지하므로 병진행을 하고, 네 번째 음에서는 5도로 달라지며 두 성부 모두 상행이므로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둘째 자리바꿈을 한 으뜸화음의 근음은 ‘솔’이다.
- ② 4성부 중에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다.
- ③ 화성은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것이다.
- ④ 높은음자리 보표와 낮은음자리 보표를 묶은 것을 큰보표라 한다.
- ⑤ 도약 진행과 병진행은 모두 한 성부의 화성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

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큰보표에서 기보되는 하 3성 중에는 높은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성부가 있다.
- ②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일 때 알토가 상행이면 반드시 테너도 상행이다.
- ③ 4성부로 ‘도’가 근음인 으뜸화음을 내려 할 때 ‘미’를 중복할 수 있다.
- ④ <그림>에 기보된 ‘파와 도’, ‘도와 솔’은 모두 음정이 5도이다.
- ⑤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부는 모두 상 3성에 포함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대한 적절한 반응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1>—

주요 3화음을 한 번 이상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네 마디의 곡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마디 1]에서 [마디 4] 순으로 연주가 진행된다.

[마디 1]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 있다.
 [마디 2] 봄기운에 흥분되어 집을 나와 타지를 떠돈다.
 [마디 3]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마디 4]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는다.

이때 [마디 1]과 [마디 4]에는 자리바꿈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화음을 사용하고, [마디 2]에는 ‘첫째 자리바꿈’을 [마디 3]에는 ‘둘째 자리바꿈’을 한 화음을 사용하기로 한다.

<보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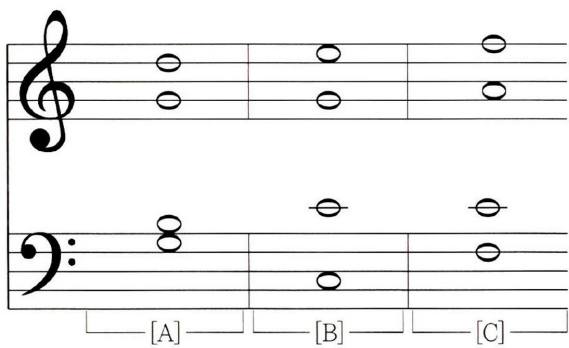
- ㄱ. [마디 1]은 연주 순서가 첫 번째이고 ‘평온’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마디 4]는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두 마디는 모두 으뜸화음을 사용해야겠군.
- ㄴ. [마디 2]에는 ‘봄기운’에 의한 감정이나 ‘집’을 떠난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딸림화음을, [마디 3]에는 해당 마디 내용과 뒤따르는 마디의 화음을 고려했을 때 버금딸림화음을 사용해야겠군.
- ㄷ. [마디 2]의 근음과 [마디 3]의 근음은 모두 으뜸화음에 없는 음이겠군.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음 큰보표는 마디 [A], [B], [C] 순으로 연주가 진행된다.



- ①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소프라노는 도약 진행을 한다.
 ② [A]에서 성부 간 중복된 음과 [C]에서 중복된 음은 서로 같다.
 ③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음자리 보표에서는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④ 테너와 베이스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반진행음,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경사 진행을 한다.
 ⑤ 상 3성의 음역에 따른 연주 악기를 고려할 때 [C]는 현악기 보다 건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무임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학자인 퍼트남은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삼자의 개입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 되는 장비인 물질 자본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 둘은 물질 자본에 해당한다.

㉠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다.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호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 퍼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이 ㉡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얇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퍼트남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얇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낫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퍼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얇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 즉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 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문화 단체, 동호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 왔다.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 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겼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남부에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

물질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자본은 시용할수록 그 집단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혜성과 신뢰도 증진되어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수평적 네트워크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 추구할 경우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호혜성의 결여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사례이다.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형하다고 여긴다면,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퍼트남은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 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㉔ 비약일 수 있는데, 12세기 당시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워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세 이탈리아 시기의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 정치 문화와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㉕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그 사회 도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8.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학생 ‘을’의 평가이다. 평가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	‘갑’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	‘을’의 평가
공통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고 있음.	적절 A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부적절 B
	(나)는 (가)와 달리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학자의 견해를 언급함.	부적절 C

-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9. (가), (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퍼트넘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 퍼트넘은 20세기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수직적 네트워크가 더 강한 지역은 어디라고 하였는가?
- 물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사용 빈도에 따른 가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이탈리아에 잔재했던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퍼트넘은 어떤 견해를 밝혔는가?

10. ㉖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은 모두 상대방에게 베풀 호의가 즉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 균형적 호혜성은 쌍방 간에 특정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상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
- 균형적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미래에 대한 상호 기대에 토대를 둔다.
- 호혜성은 이익을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해 나가는 경향성이다.

11.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㉗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생 국가의 독립은 자국이 물적 자본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국가 주도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도 비도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신생 국가의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에 협력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신생 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최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구성원을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한 공동체가 신생 국가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왔다면 공적인 일을 협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2. 다음의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넘’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황 1] 모두가 해야 하는 교실 청소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청소를 하니 자신은 깨끗한 교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교실 청소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

[상황 2] 오래전부터 K 마을 사람들은 김치 담그는 일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 작업으로 해결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다.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집이든 일이 끝나면 집주인은 김치를 두 포기씩 나누어 준다.

[상황 3] 한 달 전 OO 마을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자, 그 마을의 P씨는 이를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회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의 입장과는 다른 게시물은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인근의 ◇◇ 지역이 수해를 입자 내일 수해 복구에 참여하자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음 날 P씨 및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 지역민들은 모두 처음 만나 힘을 합하여 수해 복구를 하며 땀을 흘렸다.

- A: [상황 1]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한 것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A: [상황 2]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 가정이 협동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A: [상황 3]에서 ‘수해 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나 힘을 합하는 모습에서 강한 결속이 드러나므로 두터운 신뢰는 사회의 통합에 유용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B: [상황 2]에서 '나누어' 받은 양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⑤ B: [상황 3]에서 '반응'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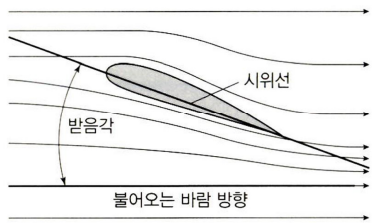
- ① ㉠: 광고는 가장 대표적인 판매 촉진의 수단이다.
- ② ㉡: 이 돈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이다.
- ③ ㉢: 그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④ ㉣: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⑤ ㉤: 결론을 내릴 때에는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풍력 발전기는 바람 에너지를 날개에 부딪히게 하여 날개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풍력 발전기는 날개의 회전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것은 수평축형, 수직인 것은 수직축형으로 구분한다. 수평축형에서 바람은 날개와 나셀, 그리고 타워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나셀은 회전 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모아 둔 상자이고, 타워는 날개와 나셀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 주는 구조물이다.

<그림>은 수평축형의 날개 중 한 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선형의 날개에 부딪힌 바람은 날개의 곡면과 평탄한 면으로 나뉘어 흐른다.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그 결과 곡면 주변은 평탄한 면의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어 날개는 양력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풍속이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한다. 한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받음각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다. 수평축형의 날개는 10도 정도의 받음각을 이루고 있어서, 풍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에 받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을 합한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때 날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풍속은 3m/s 이상이어야 한다.

나셀 내부에는 증속기, 제너레이터, 제어기가 들어 있다. 날개의 회전축은 증속기를 거쳐 제너레이터 축과 연결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을 전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때 증속기는 날개의 회전축의 회전 속력보다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더 증가시켜 준다. 제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전기의 양을 전기의 출력량이라 하며, 과도한 고속 회전은 제너레이터를 손상시키므로 제너레이터의 내구성을 고려해 정해 둔 전기의 출력량의 최댓값을 정격 출력이라 한다. 정격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속이 15m/s에 도달해야 한다.



<그림>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의 효율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제어기에는 요잉 장치와 피치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날개에 고르게 닿아야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잉 장치는 바람의 방향에 대응해 나셀을 움직여서, 회전축을 바람의 방향에 평행하도록 이동시킨다. 피치 장치는 고속 회전에 의한 부품들의 손상을 막기 위해 날개를 움직여 받음각을 조절한다. 그래서 풍속 15m/s부터 25m/s까지는 정격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하나 정격 출력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피치 장치는 풍속에 의해 양력이 증가하는 만큼 받음각을 조절하여 날개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만든다. 풍속이 25m/s를 초과하면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받음각을 0도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어 날개 회전을 중단한다. 이후 풍속이 줄어들면 브레이크 장치의 작동은 해제되고 피치 장치는 받음각을 복원한다.

발전 효율이란 투입한 바람 에너지에 대한 출력되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이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베츠에 의해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59.4%를 넘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상용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이 값보다 더 낮다. 수평축형의 발전 효율이 수직축형보다 더 높은데, 수직축형은 한쪽 날개에 바람이 닿는 동안 반대쪽 날개에는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직축형은 여러 방향의 바람에도 날개 회전이 가능해서 요잉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수평축형에 비해 제어기의 구조가 간단하다.

- * 유선형: 물이나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부분을 곡선으로 만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한 형태.
- * 시위선: 날개의 앞 꼭짓점과 뒤 꼭짓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상의 선.

14.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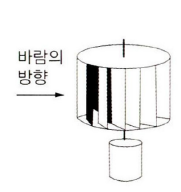
- ① 정격 출력의 의미와 풍력 발전기에서 정격 출력을 정해 두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 ②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에서 날개의 단면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 ③ 물리학자인 베츠가 발전 효율과 관련하여 연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 ④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타워의 높이는 얼마여야 하는가?
- ⑤ 나셀 안에 들어 있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셀은 바람을 모아서 이를 날개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양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 ③ 날개의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 ④ 증속기에 의해 날개의 회전축의 회전 속력은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보다 증가한다.
- ⑤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와 달리 수직축형 풍력 발전기에는,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날개의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필요 없다.

16.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준비한 학생의 발표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나]

위 두 그림은 형태가 다른 풍력 발전기로, [가]는 수직축형이고 [나]는 수평축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이 이루는 각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은 바람이 날개에 닿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바람 에너지를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 전기의 출력량은 (㉡) .

- | | |
|-----------|-----------------|
| ㉠ | ㉡ |
| ① 날개의 시위선 | [가]가 [나]보다 적습니다 |
| ② 날개의 시위선 | [가]가 [나]보다 많습니다 |
| ③ 제너레이터 축 | [가]와 [나]가 같습니다 |
| ④ 날개의 회전축 | [가]가 [나]보다 적습니다 |
| ⑤ 날개의 회전축 | [가]가 [나]보다 많습니다 |

17. <보기>는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하루 동안의 시간대별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T1~T5 시간대에 따른 발전기의 작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구분	시간대	풍속
T1	오전 9시~오전 10시	2m/s에서 1m/s로 점차 감소
T2	오전 11시~정오	4m/s에서 7m/s로 점차 증가
T3	오후 1시~오후 2시	8m/s에서 13m/s로 점차 증가
T4	오후 3시~오후 4시	16m/s에서 23m/s로 점차 증가
T5	오후 5시~오후 6시	28m/s에서 26m/s로 점차 감소

- ① T1과 T2는 풍속이 약하여 발전기에서 전기가 출력되지 못했을 것이다.
- ② T3에서는 풍속과 무관하게 전기의 출력량이 일정했을 것이다.
- ③ T4에서는 날개의 받음각을 감소시켜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이다.
- ④ T5에서는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여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의 일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격 출력을 얻었을 것이다.
- ⑤ 풍속이 점차 증가하는 T2, T3, T4 중에서는 풍속이 점차 감소하는 나머지 시간대와 달리 증속기가 멈추는 시간대가 있었을 것이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우가 경사(京師)*에 다다라 먼저 대궐에 가서 천자의 은혜에 정중하게 사례하였다. 상이 크게 반기시어 불러 보시고 공적을 표창하시어 예부상서 영릉후에 임명하셨다. 태우가 천자의 성은에 감사를 드리고 집안에 돌아와 부모를 뵈었다.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근심이 끝이 없더니 온 집안에 반감이 무궁하였다. 승상과 부인이 태우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태우가 사죄하고 설생을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모두들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승상이 모든 자식들과 더불어 서헌에 나와 설생을 보았는데, 맑고 높은 기질이 표연히 선풍도골(仙風道骨)*이었으니, 수려하고 깨끗한 풍채가 눈을 놀라게 하였다. 승상 및 태우의 여러 형제들이 매우 놀라서 심분 공경하고 별채인 송죽헌에 거처하게 하면서 의식을 각별히 하여 후대하였다. 승상은 설생이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움을 괴이하게 여기었고 이부상서 유세기는 한 번 설생을 보자 결단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우들에게 당부하였다.

[A] “설생이 타향 사람으로 우리를 서먹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 들은 번잡하게 가서 보지 말고 설생을 편히 있게 하여라.”

이부상서 형제가 명을 받들어 구태여 설생을 찾지 않으나 유독 영릉후가 된 세창의 자취가 송죽헌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 영릉후가 매화정에 나가 부인인 남 소저를 대하자 소저가 얼굴에 회색을 띠어 맞이하고 서너 명의 자녀가 겹겹이 반겼다. 영릉후가 다시금 애정이 새롭게 솟아오르면서 이별의 회포를 이르며 반가워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러나 영릉후의 한 조각 마음에는 설생이 객수(客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미심쩍어 마음이 갈리니 이 밤을 겨우 새워 아침 문안 인사를 끝낸 후 바로 송죽헌에 가 설생을 보았다. 영릉후가 설생과 종일토록 말하였는데, 말마다 의기투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밥 먹고 잠자기를 다 잊을 정도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설생은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것이 순탄치 않고 마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천자께 세창과 자신의 혼사를 성사시켜 줄 것을 청해 명분을 얻고자 한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문무 장원에 뽑혀 천자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다.

초벽이 머리를 조아리고 ㉠ 죄를 청하였다.

[B] “신이 일월을 속이고 음양(陰陽)을 바꾼 죄가 있으니 감히 조정에 아뢰지 못하겠으나, 신의 죄를 용서하시면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차설(且說). 천자가 놀라시어 설초벽에게 마음속에 품은 것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 하시자, 초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신(臣)은 본래 설경화의 어린 딸입니다.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혈혈단신의 아녀자가 강포한 자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 남장(男裝)을 하고 무예를 배워 풍양의 진중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은거하면서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세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세창이 비록 제가 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기(知己)로 허락하였으나, 신이 여자의 몸으로

세창과 동행하여 먹고 자기를 한가지로 하였사오니 의리로 다른 사람을 좇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간다면 뽕나무밭과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나는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뜻을 결정하여 인륜을 폐하고 몸을 깨끗하게 마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부모의 혈맥이 다만 신첩(臣妾)의 한 몸에 있기에 차마 사사로운 염치와 의리 때문에 죽어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後嗣)를 끊게 하는 ㉠죄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온갖 계책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나 그욕이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만민의 부모가 되시니 반드시 신첩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윤리를 완전케 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방목(榜目)*에** 이름을 걸어 성충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저의 진정한 회포를 아웁니다.”

상께서 매우 놀라고 기특하게 여기시어 영릉후인 유세창을 돌아보셨다. 영릉후 또한 매우 놀라 안색이 흠뻑이었다. 상이 유 승상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설씨녀의 재주와 용모와 의협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사정이 불쌍하니 짐이 중매가 되어 세창과 혼인시킬 것이다. 경은 육례(六禮)를 갖추어 저 설씨녀를 맞이하고 평범한 며느리로 대접하지 마라. 저 사람이 타향에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 혼사를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계기로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묘책이다. 충성심이 세상을 덮을 만하고 문무 장원을 하였으니 삼백 칸 집과 가동(家僮)과 노비를 전례대로 사급하며 특별히 여학사(女學士) 여장군에 임명하여 영릉후 세창의 둘째 부인으로 정하나니 선생은 명심하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 * 경사: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 * 선풍도골: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라는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고아한 풍채를 이르는 말.
- * 객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 * 방목: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적은 책.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우는 천자의 도움으로 승상과 약속한 기한 내에 돌아올 수 있었다.
- ② 승상과 그의 모든 자식들은 설생이 태우와 함께 올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이부상서는 설생의 정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태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 ④ 태우는 설생의 정체를 미심쩍어하면서도 그의 처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⑤ 천자는 초벽을 보자마자 그의 재능과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1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언급하며 제삼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B]는 자신과 제삼자의 관계를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곤란함을 설명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의 과거 행적을 제시하며 상대가 지켜야 할 일들을 지시하고, [B]는 타인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A]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지적하여 상대의 행위를 다그치고, [B]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상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의 실수를 수용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B]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상대와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⑤ [A]는 대상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여 상대의 관용을 요청하고 있다.

20. ‘설초벽’을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세창을 만난 후 행한 일이며, ㉡은 유세창을 만나기 전에 발생한 상황이다.
- ② 설초벽은 ㉡이 되지 않기 위해 ㉠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 ③ 유세창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을 얻고, ㉡이 되었다.
- ④ ㉡에 이르게 된 것은 ㉠을 청한 것과 달리 천자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을 받게 된 것은 ㉡이 된 것과 달리, 설초벽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세창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대하소설이다. 대하소설은 남녀의 결연과 그 이후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결연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결연담 중 늑혼(勒婚) 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늑혼이란 원래 한쪽의 혼인 주체가 권력이나 재물 등을 활용하여 상대 혼인 주체에게 강요하는 혼사를 말한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자신의 애정을 관철하기 위해 늑혼을 이용한 여성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다. 당시 가부장제 체제하의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나가기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를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설초벽이 유세창과 허물없는 ‘지기’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남장’을 하는 모습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설초벽이 천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아뢰는 것은 유세창과 혼인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애정을 관철시키기 위함 이군.

- ③ 천자가 유 승상에게 설초벽과의 혼인을 '명령'하는 장면을 통해 권력을 활용하여 유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려는 설초벽의 의도를 보여 주는군.
- ④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에 이름'을 올린 설초벽의 모습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여성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설초벽이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가는 것을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에서 당시의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가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안경을 코에 걸치고
 ㉠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품위 없는 짓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 김광규, 「뺄셈」 -

(나)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 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매, ㉢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석(朝夕)으로 아쉽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흰하면 일어나 뜰을 거닌다.

진달래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눈에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였다. 눈만 아니라 코에도 아직 꽃향기였다.

그러던 꽃이 다 졌다. ㉣ 머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었어도 지고 자빠도 졌다. 그중에도 었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찢었다.

가만히 보면 었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적막이요, 슬픔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쯤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다.

낙화(落花)의 적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 이번 처럼 마음을 찢러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뭇가지는 자주 손질을 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피주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볼 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보다 더욱 박명(薄命)은 하리라. 그러나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적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낙화는 한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千古)를 보는 양,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축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그런 낙화를 위해 나무 아래의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럽다.

- 이태준, 「낙화의 적막」 -

*적멸: 세계를 영원히 벗어남. 또는 그런 경지.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모순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 ③ 타인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사라진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 ④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다.
- 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상향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23.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과 단절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광규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에는 평이한 시어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려 내는 시인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순한 셈법에 삶의 자세를 빗대어,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있다.

- ① ‘덧셈’을 끝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를 통해 시인이 추구한 삶의 모습과 지향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을 통해 화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③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와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덧셈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④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부질없다고 여기는 화자의 모습은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뺄셈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비우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침마다 흰하면 일어나 뜰을 거’니는 ‘나’의 모습은 ‘봄’을 간절히 기다렸던 심정을 보여 준다.
- ② ‘밥상을 대하면 눈엔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는 것은 꽃 감상에 푹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강조한다.
- ③ ‘가만히 보면 엮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은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나’의 태도를 나타낸다.
- ④ ‘꽃이 떨어질 자리’의 ‘거칠음’은 그동안 낙화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을 드러낸다.
- 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은 ‘나’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낙화’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③ ㉢에는 기대하던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내포 되어 있다.
- ④ ㉣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고뇌가 담겨 있다.
- ⑤ ㉤에서는 과거의 상황과 대비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야 인마, 너 정말 목수한테 가긴 갔었어?”
 선생님은 저녁 해가 떨어지자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 그럼요. 제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아직 안 와!”
 “글쎄 꼭 오라고 부탁을 했더니깐요.”
 “그런데 아직 안 오지 않아.”
 “헤 참, 선생님도 급하시긴. 전에는 며칠씩도 문밖에 안 나오 시곤 했으면서 뭘 그러셔요.”
 나는 화실 ㉠창문 밖 등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쇠창살 안의 선생님 말동무를 해 주며 그렇게 웃었죠. 그랬더니 창턱에 걸터앉은 선생님은 곰방대를 뽀뽀뽀 뺄면서,
 “이 녀석 바라! 그거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구 지금은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 아냐.” 하며 웃더군요.
 “마찬가지죠 뭘. 안 나가나 못 나가나 화실 안에 있는 건 같지 않아요. 뭘 심부름시킬 일 있으면 시키셔요. 제가 다 해 드릴 게요.”
 “일은 무슨 일이 있어, 이 녀석아.”
 “그럼 됐죠 뭐.”
 “허 녀석.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구나, 넌.”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뭘 불편하신 게 있어요, 서울 가실 일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요.”
 “듣기 싫다, 이 녀석아. 너하고 이야길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안의 돼지하고 하겠다.”
 “헤 참, 선생님도. 이제 목수 아저씨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동안 선생님 저녁이나 드셔요. 전 식은 밥이라도 한술 먹어야겠어요.”
 난 일어나 별채로 나왔어요. 선생님은 화실에 전등을 켜 생각도 않고 그대로 창턱에 걸터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기다려도 목수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시다.

(중략)

“야 인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 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쇠창살을 두 손으로 짊 쥐고 마구 흔들며 대며 소리소리 지르지 뭇니까.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난 전엔 그런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창에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 나와서 날 박살을 냈을 겁니다. 정말 겁났어요. 이마엔 핏줄이 서고 입은 딱 다물고. 선생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나 아닌가 했더니깐요.
 “예, 목수 아저씨한테 또 갔다 올게요, 선생님!”
 나는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읍내로 달렸습시다. 그땐 벌써 밤이 꽤 깊었죠. 캄캄한 길을 나는 거의 단숨에 읍내에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뭇니까. 목수 아저씨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자고 있지 뭇니까.
 “아저씨, 빨리 좀 일어나세요. 문을 좀 열어 주어야 해요.”

“음, 문……? 문을 열면 되지 뭐 그래.”
 목수 아저씨는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좀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잔뜩 화났단 말예요!”
 “화가 나……? 왜 화가 나…….”
 목수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취해서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이죠.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단 말예요!”
 “문이…… 고장이 났다!”/“예, 그래요.”
 “인마, 문이 무슨 고장이 나고 말고가 있어…… 열면 되지……
 문이란 인마, 열리게 왜 있는 거지, 인마.”
 목수 아저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쓱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누워 버렸어요.
 “그게 아냐요 아저씨가 달아 준 저의 선생님 화실 문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걸어차라 걸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디 있어, 인마.”
 목수 아저씨 잔뜩 몸을 꼬부리며 줌처럼 깨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총각, 웬만하면 널 아침 일찍 고치지.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되겠어 어디.”
 목수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글쎄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미쳐?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미칠 거야 뭐 있어?”
 “글쎄나 말이지.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런
 걸 어떡해요.”
 “왜, 뒷간에라도 가고 싶은가?”
 “뒷간엔요! 그런 건 다 안에 있죠.”
 “그럼 배가 고프는가?”
 “허 참, 아주머니도. 먹을 건 얼마든지 안에 다 있다가요!”
 “그런데 왜 그래. 먹을 것 있구 뒤불 데 있으면 됐지, 그런데 미치긴
 왜 미쳐? 오, 바람이 안 통해서 숨이 답답한가 보구먼 그래.”
 “허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왜 안 통해요. 스무
 평방의 사방이 창문인데!”
 “그럼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더구나 지금 밤인데, 열어
 놓았던 문도 걸어 잠그고 잘 시간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윈 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 이범선, 「고장 난 문」 -

2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사건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④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을 통해 사회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쇠창살을 잡고 소리 지르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 ② ‘나’는 화실에 갇힌 선생님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여긴다.
- ③ 선생님은 ‘나’와 대화를 하며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답답해하였다.
- ④ 선생님이 역정을 낸 것은 목수가 밤늦게 도착할 것임을 ‘나’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 ⑤ 목수네 아주머니는 목수가 술에 취했음을 근거로 들어 ‘나’가 목수를 데려가는 것을 만류하였다.

29. ㉠의 서술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 ②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곤란함을 막아 준다.
- ③ 외부에 대한 갈망이 표출된 곳으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해 준다.
- ④ 외부의 현실을 투영하여 내부에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욕망을 강화한다.
- ⑤ 외부와 내부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여 현실을 외면하려는 인물의 의식을 보여 준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장 난 문」은 외적 요소에 의해 자유가 억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현실, 권력 등의 외적 요소를 상징하며, 작품 속 화가는 고장 난 문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립된 상황에 놓인 화가는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해결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변 인물들로 인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자유가 억압하던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 소시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① 문을 열기 위해 목수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선생님의 모습은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저항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②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라고 답하는 목수의 아내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당대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③ 고장 난 문을 고쳐 달라는 ‘나’의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목수의 태도를 통해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보여 주는군.

- ④ 화실 안에 갇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는’ 선생님의 모습은 자유가 억압당하며 점차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군.
- ⑤ 사방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화실 안에 갇혀 답답함을 호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이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소지형 시가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소지(所志)’ 형식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고문서의 한 양식인 소지가 국문 시가와 갈래 교섭을 일으키며 문학사에 등장한 형태이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데, 청원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내용의 기술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적 수사 장치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문학 양식과의 접변 및 교섭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열려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소지의 본래 성격은 청원(請願) 및 진정(陳情)에 있다. 따라서 소지를 활용한 소지형 시가의 경우 작가가 지니고 있는 심적 지향을 진술하거나 소망하는 바를 청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적 화자의 소망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말놀음, 극한 과장, 전고(典故) 차용 등 다양한 수사적 장치가 동원된다. 한편 소지형 시가 작품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무절제하게 표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말미에서 청원 및 진정을 처리해 주는 권한자의 처분을 제시하여 화자의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나)

삼가 뜻하는 바를 아뢰오니 상제께서 ㉠ 처분 하오소서

주천(酒泉)*이 주인 없어 오래도록 황폐하였으니 그 이유 살피신 후에 제가 바라는 일을 처결하여 허락함을 공증문서로 발급하옵소서

상제께서 소장 안에 호소하는 바를 다 살펴보았거니와 유령* 이백*도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세상의 공적 물건이라 제 마음대로 못 할 일이라

- 작자 미상 -

*주천: 중국 감숙성의 지명으로 술맛 나는 물이 샘솟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풍류와 취락의 이상적 공간으로 널리 이름난 곳.

*유령: 중국 진나라 때의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으로, 술을 몹시 즐기던 시인.

*이백: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술을 친구로 삼은 시선(詩仙)으로 불림.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 받지 못했거든: 주천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

(다)

순창 서리(胥吏) 최윤재는 사또님께 소지(所志) 올려 원통함을 아뢰오니 올바르게 처결해 주소서
 구월 십사일은 담양 부사 생신이라
 소인의 사또가 사흘 전에 달려갈 때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갔는데
 광주 고을 목사와 화순 창평 남평 원님
 십사일 조식 후에 일제히 모이셨네
 바야흐로 큰상에 성찬을 벌여 놓고
 관악기 현악기는 누각에 늘어놓고
 구름 같은 묘한 곡에 씩씩한 몸 상좌에 앉아 있고
 도내의 제일 명창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무를 대령하여 이날을 보낸 후에
십오야 밝은 달의 후약이 어디인가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화려한 육각 양산 청산에 나부끼고
 오마(五馬) 쌍전은 단풍 숲으로 들어갈 제
 옥패는 쟁그랑쟁그랑 걸음마다 울리고
 낭랑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 제
 동산의 고상한 놀이* 용문의 눈 구경*에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아리따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 지어
 말 타고 군졸들과 수레를 뒤따르니
 창안백발 **화순 원님** 기생에게 다정하사
 굽이진 곳에서 자주 돌아보시기에
소인은 하인이라 말에 앉아 있기 황송하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오르락내리락 몇 번인 줄 모르겠네
 망망히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노라니
 석양에 큰길 아래서 실족하야 넘어지니
 돌들이 흩어진 곳에 콩 태 자로 자빠지니
 팔다리도 부러지고 옆구리도 빼어서
 어혈(瘀血)이 마구 흘러 흉격이 퍼지지 않고
 금령이 지엄하와 개똥도 못 먹고
 병세가 기괴하와 날로 위중하니
 푸닥거리 경 읽기는 다 해 봐야 헛되도다
 이제는 하릴없이 죽을 줄로 알았더니
 곰곰 앉아 생각하니 이것이 뉘 탓인고
 강천에서 배행하던 **기생들의** 탓이로다
 네 쇠뿔이 아니런들 내 담이 무너지랴
속담에 이른 말씀 예부터 이러하니
소인의 죽는 목숨 그 아니 불쌍한가
 소인이 죽거든 저년들을 죽이시어
불쌍히 죽는 녀를 위로하여 주옵실까
 실낱같이 남은 목숨 살려 주시길 바라나이다

(중략)

죄범이 중타 하시어 저리 행하옵시니
 수화(水火)에 들라 하신들 감히 거역하리까

죽이지거나 살리시거나 ㉞ 처분대로 하려니와
 의녀 등도 원통하와 소회를 아릴 것이니
 일월같이 밝으신 순찰 사또님께
 한 말씀만 아뢰옵고 매를 맞고 죽겠나이다
 의녀 등은 기생이요 최윤재는 아전이라
 기생이 아전에게 간섭할 일 없사옵고
화순 사또 뒤돌아보시기는 구태여 의녀들을 보시려 하셨던
 건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물을 구경하려다 우연히 보셨던 건지
 아전이 제 인사로 제 말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하여 만일에 죽는다 한들
 어찌 의녀들이 살인이 되리이까

- 이운영, 「순창가」 -

* 동산의 고상한 놀이: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화계 땅 동산에서
 은거하면서 한가로이 노닐 적에 항상 가무에 능한 기녀를 대동
 했다는 고사를 이룸.
 * 용문의 눈 구경: 서도(西都)의 태수 전유연이 송나라 사회심과
 구양수가 눈이 내린 용문의 향산(香山)에 이르자 용문의 눈경치를
 구경할 것을 권유한 고사를 이룸.

31.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통해 대상을 향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화자와 대상 인물 간의 문답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32.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공증문서'의 발급 요청을 통해 부각하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제가 바라는 일'을 청원하며 황폐화된 '주천'을 '상제'께서 복구시켜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적 지향을 표출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제'가 화자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과도한 욕망에 대한 경계를 전달하고 있군.
- ④ (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소인의 죽는 목숨'의 억울함이 '기생들'의 탓임을 강조하고 있군.
- ⑤ (다)는 '불쌍히 죽는 닢'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을 권한자에게 진정하며 개인의 소망을 함께 청원하고 있군.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윤재'는 사령의 우두머리로서 순창 사또의 행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 ② '십오야 밝은 달의 후약'은 '호남 소금강'의 산수를 유람하는 것이었다.
- ③ '소인'은 '화순 원님'이 보는 앞에서 말에 타고 있기가 민망하여 말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 ④ '의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원통한 소회를 아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 ⑤ '의녀'들은 '화순 사또'가 뒤를 돌아보신 것은 자신들을 보고자한 것인지 경치를 보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34. ㉞와 ㉟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는 화자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고, ㉟는 화자가 현재 처한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㉞에는 화자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㉟에는 화자가 수용해야 하는 결과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 ③ ㉞에는 권한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㉟에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권한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④ ㉞에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제안이, ㉟에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명령이 반영되어 있다.
- ⑤ ㉞에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이, ㉟에는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한이 나타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짝수형

[35~37] 다음은 면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어서 오세요. '○○ 식물원 관찰 과학 캠프'에 지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캠프 참가 신청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선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네. 신청서에 썼듯이 제 희망 진로는 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변 식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 식물원 누리 소통망에 올라오는 내용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관찰 과학 캠프에 대한 공지 글을 보고, 제가 꼭 해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네, 아주 열정이 넘치는군요. 참가 신청서에 캠프 중 꼭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들꽃 관찰'을 써 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 들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며 지나칩니다. 저는 이름이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집 근처 공원과 산을 지나면서 보이는 대로 사진을 찍고 전문 서적에서 들꽃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 들꽃이 생명력이 강하고 예쁘면서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들꽃 전문가인 김□□ 박사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제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 그렇군요. 전문 서적에서 들꽃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책에서 찾은 들꽃 중 주변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들꽃 한 가지만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 네, 식물원으로 오는 길에 있는 공터에 개망초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망초꽃은 국화를 축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개망초꽃」이라는 시에서 흔하게 보이는 꽃이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흔히 보면서도 잘 모르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잎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꽃은 차나 염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쓰임새가 많은데,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면접관: 보통 학생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시까지도 아는 것을 보니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찰 과학 캠프를 위한 기초 소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뭇잎 샘플을 보여 주며) 여기 세 장의 나뭇잎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면접관: (샘플을 건네주며)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찾은 만큼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학생: 세 나뭇잎은 모두 길쭉한 형태로 비슷해 보이지만 두 번째 잎의 무늬가 훨씬 촘촘하고 다른 둘은 간격이 넓습니다. 첫 번째 잎은 나뭇잎 주변이 뾰족한 편이지만 나머지 둘은 매끄럽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잎은 계통적으로 같고, 두 번째 잎은 다른 두 개와 다른 것 같습니다.

면접관: 눈썰미가 좋네요. 첫 번째는 밤나무, 두 번째는 나도밤나무, 세 번째는 너도밤나무 잎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학생: 몰랐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네요.

면접관: 계통을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걸요. 마지막으로 이번 관찰 과학 캠프 참가가 확정된다면 캠프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네. ○○ 식물원은 평소에 외부 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침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실제로 보기 어려운 식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유 탐구 시간을 활용해서 쉽게 볼 수 없는 식물을 많이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 식물원의 귀한 식물들'이라는 안내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면접관: 좋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합격한다면 다음에 만납시다.

학생: 감사합니다.

35. 면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에게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 ② 학생이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답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면접 상황에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의 관찰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생이 한 답변의 내용을 일부 반복하면서 답변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 ⑤ 학생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36. 학생이 세운 답변 계획 중 면접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지원하게 된 계기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나의 희망 진로와 ○○ 식물원에 대한 관심을 엮어서 이야기해야겠어.
- ② 제출한 신청서에 관한 질문에는 신청서 작성 의도를 설명하면서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해야겠어.
- ③ 식물이나 꽃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연관된 인문학적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야겠어.
- ④ 답변이 쉽지 않은 질문에는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겠어.
- ⑤ 캠프에서의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내가 ○○ 식물원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정보를 반영하여 답변해야겠어.

37. 다음은 위 면접의 평가 기준의 일부이다. ㉠, ㉡과 관련하여 보일 수 있는 면접관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I. 지원자는 캠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 1. 관찰 및 탐구 역량 ㉠
 - 2. 탐구 계획 및 문제 해결 역량 ㉡

① ㉠: 여러 나뭇잎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을 보니 관찰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해야겠어.

- ② ㉠: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들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관련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해야겠어.
- ③ ㉠: 신청서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들어 보니, 평소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스스로 탐구하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해야겠어.
- ④ ㉠: ○○ 식물원의 방침을 잘 알고 이를 탐구 계획에 반영한 것을 보니 계획을 세우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해야겠어.
- ⑤ ㉠: 함께할 들꽃 전문가에 대해 알고 있고 도움을 받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음을 볼 때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해야겠어.

[38~42] (가)는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듣고 교지에 기고하기 위해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과학 특강 시리즈 두 번째, ‘영화 속의 지구 과학’ 강연을 맡은 천문 연구원 □□□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속의 내용들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죠. (영화 장면을 보여 주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이 데이트 분위기를 위해 달을 당겨 오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달을 당겨 올 수는 없지만 달이 지구 가까이와서 평소보다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슈퍼 문’입니다.

슈퍼 문이 나타나는 이유는 달이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원에 가깝기는 하지만 타원 궤도라서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이렇게 지구와 가까워지는 곳이 있고 멀어지는 곳이 생기는데요, 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을 때의 보름달이니까 당연히 다른 보름달보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올해는 10월 17일에 뜬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슈퍼 문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조석 간만의 차가 다른 때보다 커지고 밀물 때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화에서 보이는 정도로 달이 가까이 오면 달의 인력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지각이 틀어지면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데이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 자전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일출이나 일몰이 없고, 밤 또는 낮이 계속될 겁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영화 장면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영화 장면을 보여 주며) 이 영화에서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서 지구 자기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들은 방향을 잃고,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지요. 지구 자기장은 새가 방향을 잡을 때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지구 자기장이 소멸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가 손상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너무 가까이 오거나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흘러보내는 장면들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오늘 강연한 내용 말고도 흥미로운 지식을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번 학기에 실시된 과학 특강 시리즈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강연은 ‘영화 속의 지구 과학’이다. 강연을 맡은 천문 연구원 □□□ 박사는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영화에서처럼 달이 지구에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이 강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학적 개념을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슈퍼 문과 지구 자기장이다.

슈퍼 문은 달이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름 달이 지구와 가장 근접한 지점인 근지점에 있을 때 나타난다. 보통 슈퍼 문은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작게 보이는 달인 미니



(출처: 한국 천문 연구원, 2017)

[A] 문보다 약 14% 더 크다. 그리고 밝기도 약 30% 더 밝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대략 384,000 km이고, 미니 문이 관찰되는 원지점은 대략 400,000 km, 슈퍼 문이 관찰되는 근지점은 대략 357,000 km이다. 이 거리 차이가 슈퍼 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달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지형지물 때문에 달이 크게 보이는 ‘달 착시’ 현상도 있다. 이는 우리가 착각하여 달을 크게 보는 것으로, 슈퍼 문과는 다르다.

달의 인력은 조석(潮汐) 현상의 원인이 되는데 슈퍼 문이 나타날 때는 달의 인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조석 간만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평소보다 19% 정도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달이 지구에 더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지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지구 자기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자전으로 내부의 액체로 이루어진 코어가 회전하면서 생겨난다는 가설이 유력하다. 지구 자기장은 비를 막아 주는 우산처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맞게 되기 때문에 큰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통신 수단이 교란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구 과학 지식은 매우 흥미로운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삶과 관련이 있는 과학 지식을 알아 보면 과학 공부도 더 즐거워질 것이다.

38. (가)에서 강연자의 강연 전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강연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청중과 소통하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서로 다른 형태의 매체 자료를 제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청중에게 과학 지식을 더 찾아볼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강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하며 강연을 이어 가고 있다.

39. (가)의 강연자가 강연을 준비하며 생각한 내용 중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영화의 장면들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②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슈퍼 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낱자를 제시해야겠어.
- ③ 청중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전하는 궤도와 관련된 설명을 준비해야겠어.
- ④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 문과 지구 자기장 현상을 비교하여 이야기해야겠어.
- ⑤ 청중이 가진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자기장 소멸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해야겠어.

40. <보기>는 (가)와 (나)를 모두 접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1: (가)에서는 (나)와 달리 슈퍼 문이 뜨는 날짜를 이야기해 주어서 유익했어. 그런데 몇 년 주기로 슈퍼 문이 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학생 2: 만유인력은 두 물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지구의 인력이 달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봐야겠어.

학생 3: (나)에서는 (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지구 자기장의 생성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지식은 아닌 것 같아.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학회의 연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가)에서만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
- ② '학생 2'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가)와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탐색하려 한다.
- ③ '학생 3'은 (나)에서만 언급된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
- ④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가)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정보를 (나)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1. (가)의 강연 내용을 활용하여 (나)를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상과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상세하게 알려 줘야겠군.
- ②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려하여 슈퍼 문과 비교되는 현상을 추가하여 설명해야겠군.
- ③ 정보 전달의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슈퍼 문과 미니 문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겠군.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연에서 언급한 영화의 내용을 제시해야겠군.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 자기장의 역할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야겠군.

42. [A]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슈퍼 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여, 여러 종류의 슈퍼 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 슈퍼 문 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구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주고 있다.
- ㉢ 슈퍼 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한 후, 슈퍼 문이 아닐 때와 비교하고 있다.
- ㉣ 슈퍼 문과 다른 현상을 비교하여 원리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43~45] 다음은 작문 과제와 이를 수행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시사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하여 비평하는 글 쓰기

[초고]

전동 키보드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 장치이다. 가까운 거리를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공유 앱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전동 키보드는 빠른 주행 속도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 안전에 더 취약하고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도로 교통법을 잘 모르고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동 키보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키보드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고의 증가 문제 때문에 2021년에 개정된 관련 도로 교통법에서는 전동 키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전동 킷보드는 인도에서 탈 수 없다. 얼마 전 주변에서 두 명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킷보드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법규 위반이면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전동 킷보드 관련 안전 문제는 공유 전동 킷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운행이 끝난 뒤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내버려둔 공유 전동 킷보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미관상의 문제로 전동 킷보드 대여 사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동 킷보드는 우리에게 이중성을 가진 도구이다. 전동 킷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3. <보기>는 초고의 4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고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또 전동 킷보드 관련 안전 문제는 공유 전동 킷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운행이 끝난 뒤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한 공유 전동 킷보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 ① 의미 중복이 나타난 표현을 수정했다.
- ② 앞 문단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정했다.
- ③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삭제했다.
- ④ 지시어를 사용하여 중의적인 의미가 해소되도록 수정했다.
- 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는 부분을 호응이 되도록 수정했다.

44.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바꾸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데, '이중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절한 비유와 함께 제시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하여 제시하면 좋겠다.

- ① 전동 킷보드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전동 킷보드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전동 킷보드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목초지의 풀처럼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공유 전동 킷보드를 대여해서 탈 때는 자신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공유 앱을 이용한 전동 킷보드 사용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두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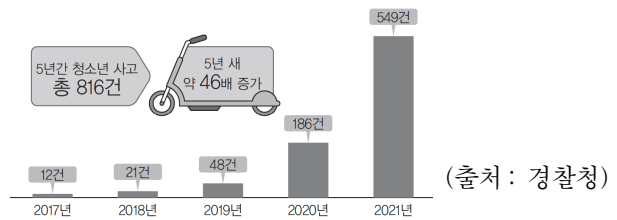
④ 전동 킷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법규를 준수하며, 공유 전동 킷보드를 이용한 후에도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⑤ 전동 킷보드는 친환경적인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동 킷보드를 탈 때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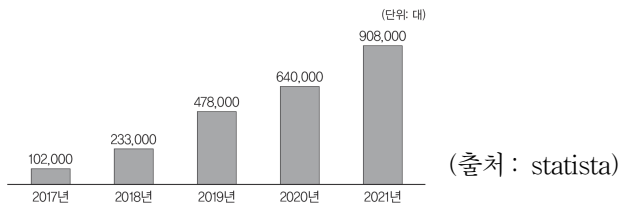
45. <보기>는 윗글을 쓴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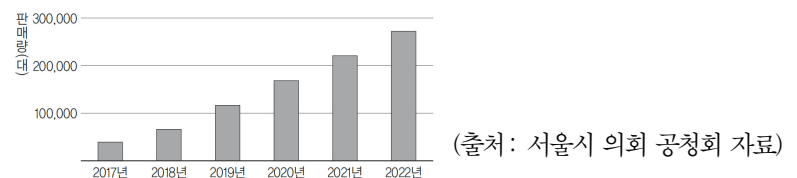
[자료 1] 10대 청소년의 전동 킷보드 사고 현황



[자료 2] 프랑스 전동 킷보드 판매 추이



[자료 3] 개인형 이동 장치 판매 현황



- ① [자료 1]: 10대 청소년의 전동 킷보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 자료로 2문단에 활용한다.
- ② [자료 2]: 다른 나라에서도 전동 킷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 주는 현황 자료로 1문단에 활용한다.
- ③ [자료 3]: 전동 킷보드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1문단에 활용한다.
- ④ [자료 1], [자료 3]: 전동 킷보드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법률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3문단에 활용한다.
- ⑤ [자료 2], [자료 3]: 외국에서도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킷보드가 많다는 것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활용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전 모의고사 1회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㉓	2	18	㉔	2	35	㉒	2	35		
2	㉒	2	19	㉑	2	36	㉔	2	36		
3	㉕	3	20	㉔	2	37	㉕	2	37		
4	㉕	2	21	㉑	3	38	㉑	2	38		
5	㉓	2	22	㉒	2	39	㉔	2	39		
6	㉔	3	23	㉒	2	40	㉕	3	40		
7	㉔	2	24	㉔	3	41	㉔	2	41		
8	㉓	2	25	㉓	2	42	㉑	2	42		
9	㉕	2	26	㉓	2	43	㉔	2	43		
10	㉒	2	27	㉒	2	44	㉔	2	44		
11	㉕	2	28	㉔	2	45	㉕	3	45		
12	㉓	3	29	㉑	2						
13	㉓	2	30	㉕	3						
14	㉒	2	31	㉒	2						
15	㉕	2	32	㉒	3						
16	㉒	2	33	㉔	2						
17	㉓	3	34	㉔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전 모의고사 1회

국어 영역 정답표
(짝수) 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㉓	2	18	㉔	2	35	㉔	2	35		
2	㉔	2	19	㉕	2	36	㉔	2	36		
3	㉕	3	20	㉒	2	37	㉕	2	37		
4	㉕	2	21	㉑	3	38	㉑	2	38		
5	㉓	2	22	㉔	2	39	㉔	2	39		
6	㉔	3	23	㉒	2	40	㉕	3	40		
7	㉔	2	24	㉔	3	41	㉔	2	41		
8	㉓	2	25	㉓	2	42	㉓	2	42		
9	㉕	2	26	㉓	2	43	㉔	2	43		
10	㉔	2	27	㉒	2	44	㉔	2	44		
11	㉕	2	28	㉔	2	45	㉕	3	45		
12	㉓	3	29	㉑	2						
13	㉓	2	30	㉕	3						
14	㉔	2	31	㉒	2						
15	㉕	2	32	㉒	3						
16	㉔	2	33	㉔	2						
17	㉓	3	34	㉒	2						